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3 COCONUT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oconut」 (원서 PDF 34~38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가."

이 장은 피냐 콜라다 이야기로 시작한다.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 코코넛을 본 적도 없던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칸쿤에서 처음 맛본 피냐 콜라다를 계기로 코코넛 밀크 요리에 빠져든다. 쓰임새가 많은 코코넛은 열대 밖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상징은 열대 사람들이 코코넛 나무 아래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가난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경제활동참가율 · 아동 노동 · 노년의 노동 · 노동 시간 통계를 들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고 반박하고, 가난은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이며 그 낮은 생산성마저 주로 개인의 자질 탓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제도 탓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장(도토리)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 때문에 가난하다(38쪽 ¶1) /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아 엘리트에게 물어야 한다(38쪽 ¶2)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36쪽 ¶4~¶5) / 코코넛 = 열대의 자연적 풍요의 상징(35쪽 ¶2~¶3)
4~5	**밑줄 함축 의미**	a radical revision /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 some prejudices die hard / It is no coincidence / rubbing shoulders with … luminaries / Quite a plausible tale / the fictitious 'lazy native' / the supposed nation of workaholics / 'worker ants'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6	지칭 추론	they · their · them이 가난한 나라의 노인과 일본인 사이를 오가는 37쪽 ¶1~¶2 / 35쪽 ¶6 they often attribute(부자 나라 사람들) vs that they supposedly get(가난한 나라 사람들) / If they did(36쪽 ¶3 = 분별 있는 주민) / he(37쪽 ¶4 = 기수)
7~8	내용 일치·불일치	코코넛의 쓰임새(35쪽 ¶1 + 38쪽 각주 i) / 아동 노동 29 · 49 · 약 40%와 '아이들의 일' 제외(36쪽 ¶6 + 38쪽 각주 iv) / 경제활동참가율 83 · 77 · 67% vs 60 · 61 · 63%(36쪽 ¶5) / 60~80 · 25~40%(37쪽 ¶2) / 1986 · 칸쿤 · 1990년대 후반(34쪽)
9~10	**어법**	의미상 주어 + being 분사구문 · 과거분사 후치(mixed) · spend + 시간 + -ing · 부사 문두 도치(First came) ·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 · have come to V · be said to have p.p. · be known to have been · 계속적 which · be made into · It is no coincidence that · so ~ that · given that / given + 명사 · attribute A to B · it is said 삽입 · rather than -ing · except that · so much so that · many of which · 단수 주어 a proportion · 29% of + 복수 명사 · not ~ until · than + do + 주어 도치 · cannot be · not as + 원급 · upon + 명사 · despite the fact that · as if + 직설법 ·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into + 동명사 · what is clear is that · least of all · help + O + 원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limited↔broad · radical↔minor · savoury↔sweet · appreciate↔disdain · immature↔ripe · versatile↔limited · bounty↔scarcity · entrenched↔shallow · industrious↔lazy · offensive↔inoffensive · plausible↔implausible · fictitious↔real · prime↔decline · valuable↔worthless · decrepit↔robust · undernourished↔well-fed · intractable↔manageable · deficient↔adequate
12	빈칸 추론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35쪽 ¶2) /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35쪽 ¶4) / It is about productivity(37쪽 ¶3) / better technologies … social arrangements(37쪽 ¶4) / beyond their control(38쪽 ¶1)
13	문장 삽입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 않는 까닭(36쪽 ¶2~¶3):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 분별 있는 주민은 눕지 않음 → (그랬다간) 두개골이 깨질 위험 → 실제 사고와 상어 도시 전설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림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코코넛 밀크 요리 목록(34쪽 ¶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코이어의 쓰임새, 35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풍요의 상징이 가난을 '설명'(35쪽 ¶5) → 부자 나라의 가정 · 열대의 편한 삶(35쪽 ¶6) → 어디서나 자라는 먹을 것과 높은 기온(36쪽 첫 줄) → 코코넛 나무 아래의 '원주민'(36쪽 ¶1)
16	요약문 완성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 vs 코코넛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소설(35쪽 ¶4 + 38쪽 각주 ii)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장소 · 나라 · True/False · 비율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는 적다 – 1986(영국 도착) · 1990년대 후반(칸쿤) · 19세기 중반(피시 앤드 칩스 가게) · 2019(경제활동참가율) · 2010~18(아동 노동). 대신 비율이 많다(83 · 77 · 67% vs 60 · 61 · 63%, 29 · 49 · 약 40%, 최대 90% vs 10% 미만, 60~80% · 25~40%). 나라 이름도 많다(칸쿤 = 멕시코 · 바이아 = 브라질 · 바이오디젤 = 필리핀 · 탄자니아 · 에티오피아 · 캄보디아). 60~80%(독일 · 덴마크 · 프랑스 대비)와 25~40%(미국 · 일본 대비)를 맞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immature ↔ ripe coconuts, before ↔ after petroleum lubricants, never mentions ↔ mentions coconut, does not include ↔ includes children's work, higher ↔ lower participation, less ↔ more than the Americans). '그렇다고들 한다'(are said to · is known to · supposedly · it is said · the supposed nation)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oconut」 (34~38쪽)

논증형(코코넛을 몰랐던 어린 시절 → 피냐 콜라다와 코코넛 요리로의 '개종' → 코코넛의 쓰임새 → 열대의 풍요라는 상징 · Bounty · 로빈슨 크루소 경제 → 게으른 열대인이라는 통념 → 코코넛 나무 농담 반박 → 통계 반박(참가율 · 아동 · 청년 · 노인 · 노동 시간) →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 → 기수와 말 → 구조적 원인 → 결론). 핵심 축은 **근면(개인) vs 생산성(구조)**, 그리고 **코코넛 이미지 vs 통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4 ¶1	도입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부정적 / 1986년 영국에 오기 전 코코넛을 본 적 없음(너무 북쪽 · 너무 가난) · 비스킷 속 말린 과육뿐
34 ¶2	전환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 첫 피냐 콜라다 · 마법 같은 맛 · 휴가의 절반은 취해서, 절반은 딸을 쫓아
34 ¶3	요리	타이 커리 → 락사 · 나시 르막 → 모케카 바이아나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 코코넛으로의 '개종' 완성
34 ¶4~35 첫 줄	사반세기 뒤	코코넛 워터 · 팜하트 · 삼바르 · 토렌의 과육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어떤 편견은 잘 안 죽는다)
35 ¶1	쓰임새	덜 익은 열매의 물 · 요리용 기름(피시 앤드 칩스 · 38쪽 각주 i의 Nut Lard) · 비누 · 화장품 · 윤활유 · 글리세린 · 코이어 · 숯 · 바이오디젤
35 ¶2	상징	다재다능함 → 열대의 자연적 풍요(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
35 ¶3	Bounty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의 이름은 우연이 아님 · 열대 그림 포장지 · Celebrations 모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5 ¶4	크루소 경제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단일 상품 모델 / 정작 소설에는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38쪽 각주 ii: 크루소의 식단)
35 ¶5	논점 전환	풍요의 상징 → 열대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 쓰임
35 ¶6~36 첫 줄	통념	가난 =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열대의 편한 삶 · 먹을 것이 어디서나(라고들 함) → 덜 부지런
36 ¶1~¶2	코코넛 나무	주로 사적으로 · '원주민'이 나무 아래 누워 기다린다는 주장 /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36 ¶3	첫 반박(농담)	두개골이 깨질 위험 · 상어 도시 전설은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릴 것
36 ¶4~¶5	본격 반박	완전한 신화 · 훨씬 더 열심히 일함 / 경제활동참가율 83 · 77 · 67% vs 60 · 61 · 63% (정의 = 38쪽 각주 iii)
36 ¶6	아동	최빈국 5~17세 29%('아이들의 일' 제외 · 최빈국 = 38쪽 각주 iv) · 에티오피아 49% · 약 40%인 나라들
36 ¶7~37 첫 줄	청년	부자 나라 18~24세 대다수 = 고등교육(최대 90% vs 10% 미만) · 성인기 초반까지 일하지 않음
37 ¶1~¶2	노인 · 시간	은퇴할 형편이 못 됨 · 몸이 쇠할 때까지 / 60~80% · 25~40% 더 일함 · 일본은 이제 미국보다 덜
37 ¶3	핵심 전환	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 · 더 오래 일하지만 덜 생산
37 ¶4	기수와 말	개인 자질이 주된 원인 아님 · 이민자의 생산성 급등(기술 ·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 · 승부는 대체로 말이 정함
37 ¶5~38 ¶2	결론	식민 지배 · 정치 분열 · 엘리트 · 불공정한 국제 체제 / 통제할 수 없는 힘 / 엘리트가 가난한 개인 탓 →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코코넛에 대한 저자의 눈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부정적(비스킷 속 말린 과육)	피냐 콜라다 이후 – 요리 · 워터 · 팜하트로 '개종'(비스킷은 아직)
코코넛과 열대	열대의 자연적 풍요 → 열대의 가난을 '설명'(통념)	그 그림은 거짓 · 가난의 원인을 잘못 짚음(저자)
로빈슨 크루소	경제학 모델 –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경제	소설 –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 · 염소 · 물고기)
가난의 원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저자)
열대의 삶	먹을 것이 어디서나 · 집과 옷이 덜 필요 → 덜 부지런(라고들 함)	실제로는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함
코코넛 나무 아래	'원주민'이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림(주창자들)	두개골이 깨질 위험 → '게으른 원주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림
경제활동참가율(2019)	부자 나라 –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	가난한 나라 –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청년기	부자 나라 — 18~24세 대다수 고등교육(최대 90%)	가난한 나라 — 고등교육 10% 미만(40개쯤) · 최빈국 아동 29%가 일함
노년기 · 노동 시간	부자 나라 — 더 일찍 일을 그만둠 · 노동 시간이 짧음	가난한 나라 — 몸이 쇠할 때까지 · 60~80% · 25~40% 더 오래
가난의 열쇠	근면(diligence)의 문제	생산성(productivity)의 문제
낮은 생산성의 까닭	개인의 자질(교육 수준 · 건강) —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만 중요	기술 · 생산 단위의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말이냐 당나귀냐)
누구 탓인가	가난한 개인(세계 엘리트에게 유리한 설명)	역사적 불의 · 국제 권력의 비대칭 · 국내 개혁 — 엘리트가 답해야 할 물음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986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그전까지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음 · 한국 = 기르기엔 너무 북쪽, 외국 과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기엔 당시 너무 가난
처음 접한 코코넛	이국적인 간식으로 팔리던 비스킷에 섞인 말린 코코넛 과육 조각(dessicated — 원서 표기) · 인생의 첫 **35년**(three and a half decades) 동안 제한적 · 부정적인 생각
piña colada	장 첫머리 [제목] = 푸에르토리코 · 럼 · 코코넛 밀크 · 파인애플 주스 /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 첫 열대 해변 휴가 · 걸음마 하는 딸
코코넛 밀크 요리	타이 커리(그린 · 레드) → 락사(말레이시아 · 싱가포르의 매콤한 국수 수프) → 나시 르막(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의 밥,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음)
나시 르막의 곁들이	튀긴 마른 멸치 · 볶은 땅콩 · 삶은 달걀 반쪽 · 오이 조각 + 삼발(칠리 소스)
moqueca Baiana	브라질 **바이아주**식 모케카(브라질 생선 스튜) · 칠리와 코코넛 밀크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코코넛 밀크로 북인도 요리만큼 무겁지 않으면서 풍부한 맛 · 그렇다고 꼭 더 좋아한다는 말은 **아님** · 코코넛으로의 '개종' 완성
사반세기 뒤	코코넛 워터(상큼한 단짠) · 팜하트(꼭 코코넛 야자로 만든 것은 **아닐 수 있음**) · 삼바르 · 토렌의 코코넛 과육(즐기지만 사랑까지는 아님)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
덜 익은 열매	깨끗한 물 · 장거리 범선이 비상용 식수로 늘 실었다**고 한다**(are said to)
코코넛 오일 · 피시 앤드 칩스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가 처음 쓴 식물성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음** · 가게 =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가 세움 · 인기 상표 = **Nut Lard**(38쪽 각주 i)
코코넛 오일의 다른 쓰임	비누 · 화장품의 중요한 재료 / 석유계 윤활유가 자리를 차지하기 **전** 공장 윤활유 / 다이너마이트 제조용 글리세린
coir · 연료	코이어 = 코코넛 겉껍질의 섬유 → 밧줄 · 솔 · 자루 · 매트 · 매트리스 속 / 겉껍질 · 껍데기 → 숯 / 오일 → 바이오디젤(**필리핀**)
Bounty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 · 영국과 캐나다에서 인기 · 포장지 = 코코넛 나무 · 맑고 파란 바다 · 흰 모래 · 쪼갠 코코넛 / Mars, Inc.의 Celebrations에 Mars · Snickers · Twix · Galaxy · Milky Way와 함께
Robinson Crusoe economy	많은 경제학자가 기초 개념을 가르칠 때 쓰는 모델 · 코코넛만 생산 · 소비하는 단일 상품 경제 / 정작 소설에는 코코넛이 **한 번도** 안 나옴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38쪽 각주 ii	크루소 = 섬의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난파선에서 찾은 닭 모이 자루에서 빈 줄 알고 버린 껍질이 자람) / 염소 사냥 · 낚시 / 코코넛은 0
열대 근로 의식 결핍론	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열대의 풍요 덕에 누린다**는**(supposedly) 편한 삶 ·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집과 옷이 덜 필요하다**고들 함**(it is said) / 모욕적이라 주로 사적으로
떨어지는 코코넛	실제로 사람이 죽음 ·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는 도시 전설 =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지어낸 인물)도 다른 곳에서 기다릴 것
경제활동참가율(2019, 세계은행)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vs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38쪽 각주 iii	경제활동참가율 = (돈을 버는 취업자 +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 생산가능인구 전체
아동 노동(UNICEF, 2010~18)	최빈국 5~17세 평균 **29%**('아이들의 일' = 집안일 · 동생 돌보기 · 신문 배달은 **제외**) · 에티오피아 **49%** · 부르키나파소 · 베냉 · 차드 · 카메룬 · 시에라리온 약 **40%** / 최빈국 = 대략 소득 1,000달러 미만(38쪽 각주 iv)
고등교육	부자 나라 18~24세(신체적 한창때) 대다수 · 미국 · 한국 · 핀란드 최대 **90%** vs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10% 미만** / 문학 · 철학 · 인류학 · 역사 =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저자의 믿음)
노년의 노동	은퇴 후 연령(나라에 따라 **60~67세**)까지 사는 비율은 가난한 나라가 낮음 / 살아 있는 한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향 · 은퇴할 형편이 못 됨 · 자영농 · 가게 주인 · 무급 가사 · 돌봄
노동 시간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보다 약 **60~80%**, 미국 · 일본보다 **25~40%** 더 / 일본인('일개미' 평판) = 요즘 미국인보다 **덜** 일함
기수와 당나귀	이민자 = 기술 · 건강이 달라지지 않아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 급등(더 나은 기술 · 경영 · 인프라 · 사회 제도) / 영양이 부족한 당나귀 → 순종 경주마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원인	식민 지배(낮은 가치의 1차 산품 특화) ·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분열 · 엘리트의 결함(비생산적 지주 · 역동성 없는 자본가 계급 · 비전 없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 · 부자 나라에 유리한 불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 — '가장 중요한 것일 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oconut」 (원서 PDF 34~38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3-1 코코넛을 몰랐던 저자, 코코넛 요리로의 '개종' 34쪽 ¶1 ~ 3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34쪽 ¶1 ~ 3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1 첫 문장	In the first three and a half decades of my life	숫자 — 35년
★	34쪽 ¶1 둘째 문장	Until I came to Britain in 1986, I had never even seen a coconut	숫자 — 서답형 1순위
▲	34쪽 ¶1 둘째 문장	South Korea being way too northern to grow it and then being too poor to import	의미상 주어 + being 분사구문 / too ~ to
▲	34쪽 ¶1 셋째 문장	The only form of coconut that I had encountered was	단수 주어 + 관계절 → was
▲	34쪽 ¶1 셋째 문장	shredded flesh mixed in some biscuits that were sold as exotic treats	과거분사 후치(능동 mixing은 오답)
◆	34쪽 ¶2 첫 문장	My view of coconut had a radical revision	밑줄 의미: 생각이 완전히 바뀌다
★	34쪽 ¶2 첫 문장	in Cancún, Mexico, in the late 1990s	장소 · 때 — 서답형 후보
▲	34쪽 ¶2 셋째 문장	I spent half that holiday getting drunk … and the other half chasing	spend + 시간 + -ing
▲	34쪽 ¶3 둘째 · 셋째 문장	First came Thai curries … Then came laksa	부사 문두 도치
★	34쪽 ¶3 셋째 문장	nasi lemak, the Malaysian-Indonesian rice cooked in coconut milk and pandan leaves	내용 일치 — 나라 이름 바꿔치기
★	34쪽 ¶3 넷째 문장	moqueca Baiana … from the state of Bahia	내용 일치 — 브라질
▲	34쪽 ¶3 다섯째 문장	I am not, however, saying that I necessarily prefer the former to the latter	부분 부정 · prefer A to B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3 다섯째 문장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was complete	밑줄 의미: 완전히 코코넛 편이 되다
★	35쪽 첫 줄(34쪽 ¶4 셋째 문장)	they may not necessarily be made with hearts of coconut palm	추측 — '반드시 ~는 아닐 수 있다'
●	35쪽 첫 줄(34쪽 ¶4 넷째 문장)	I have even come to appreciate – although not quite love –	어휘: appreciate ↔ disdain / 부분 부정
◆	35쪽 첫 줄(34쪽 ¶4 넷째 문장)	(some prejudices die hard)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저자는 인생의 첫 35년 동안 코코넛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었다. 한국은 코코넛을 기르기에는 너무 북쪽에 있었고, 당시에는 외국 과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접한 코코넛이라고는 이국적인 간식으로 팔리던 비스킷에 섞인 말린 코코넛 과육 조각이 전부였다. 그 생각은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에서 처음으로 열대 해변 휴가를 보내며 첫 피냐 콜라다를 마셨을 때 크게 바뀌었다. 저자는 늘 파인애플 주스를 좋아했는데, 그것을 코코넛 밀크와 럼에 섞자 마법 같은 맛이 났다. 휴가의 절반은 피냐 콜라다에 취해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해변과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걸음마 하는 딸을 쫓아다니며 보낸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코코넛 밀크를 쓰는 짭짤한 요리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코코넛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높아졌다. 처음은 그린과 레드 두 가지 타이 커리였다. 다음은 코코넛 밀크를 넣은 매콤한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국수 수프 락사, 그리고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으로 지은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밥 나시 르막이었다. 나시 르막은 보통 튀긴 마른 멸치, 볶은 땅콩, 삶은 달걀 반쪽, 오이 조각 같은 맛있는 곁들이와 칠리 소스인 삼발을 곁들여 먹는다. 브라질 여행에서는 브라질 생선 스튜 모케카 가운데 칠리와 코코넛 밀크를 넣은 바이아주식 모케카 바이아나에 반했다. 코코넛 밀크로 북인도 요리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내는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를 만나자, 코코넛 쪽으로의 '개종'이 완성되었다. 그렇다고 남쪽 요리를 북쪽 요리보다 꼭 더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피냐 콜라다로 처음 코코넛 밀크를 맛본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저자는 다른 형태의 코코넛도 즐기게 되었다. 상큼하면서 달고 짭짤한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고,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의 샐러드 바에서는 접시에 팜하트를 수북이 담는다. 팜하트가 꼭 코코넛 야자의 순으로 만든 것은 아닐 수 있고, 다른 야자도 자주 쓴다. 삼바르나 토렌 같은 남인도 요리에 들어가는 코코넛 과육 조각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다만 마카롱이나 다른 비스킷에 넣는 것에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가지 않는다. 어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어법

- **Until I came to Britain in 1986, I had never even seen a coconut, South Korea being way too northern to grow it and then being too poor to import 'luxury' items** : had never seen = 과거완료(1986년 이전까지의 경험). 콤마 뒤 = 의미상 주어 South Korea + being으로 된 독립분사구문(주절의 주어 I와 달라 밝혀 씀, 이유). way = 비교 · too를 강조하는 부사(훨씬).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는. then = 그때(당시).
- **The only form of coconut that I had encountered was dessicated, shredded flesh mixed in some biscuits that were sold as exotic treats** : 주어 The only form(단수) + 목적격 관계절 that I had encountered → was. mixed = 과거분사 후치(비스킷에 '섞인' 과육 — 변형 → mixing은 오답). that were sold as = 주격 관계대명사 + 수동(선행사 biscuits → were).
- **I had always been fond of pineapple juice, but when it was mixed with coconut milk and rum, the result was magical** : had been = 과거완료 계속(그때까지 늘 좋아했다). be fond of = ~을 좋아하다. it = pineapple juice. when 절 = 수동(was mixed with).

- **I think I spent half that holiday getting drunk on piña colada and the other half chasing after my toddler daughter** : spend + 시간 + -ing = ~하며 시간을 보내다. half that holiday ... the other half = 절반은 …, 나머지 절반은 …(the other = 둘 가운데 나머지 하나).
- **First came Thai curries – both green and red varieties. Then came laksa, ...** : 순서 부사(First · Then) + 자동사 came + 주어(Thai curries · laksa) = 부사 문두 도치. 주어가 길거나 새로 등장할 때 문장 끝에 둔다.
- **South Indian and Sri Lankan dishes that use coconut milk to give rich flavour without tasting as heavy as northern Indian ones** : that use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dishes → 복수 use, 일반적 사실이라 현재). to give = 목적의 to부정사. without -ing = ~하지 않고. as heavy as = 원급 비교. ones = dishes.
- **I am not, however, saying that I necessarily prefer the former to the latter** : not ... necessarily =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부분 부정). prefer A to B = B보다 A를 좋아하다. the former(전자)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the latter(후자) = 북인도 요리.
- **I have even come to appreciate – although not quite love – the shredded coconut flesh used in some of the South Indian dishes** : have come to V = ~하게 되었다(현재완료). appreciate와 (not quite) love가 목적어 the shredded coconut flesh를 함께 씀. not quite = 완전히 ~는 아닌(부분 부정). used in = 과거분사 후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cade	10년	ten years	—
luxury (n., 명사 수식)	사치품, 고급	extravagance	necessity
exotic	이국적인	foreign	native
radical	근본적인, 급격한	drastic	minor
revision	수정, 바꿈	change	—
be fond of	~을 좋아하다	like	dislike
esteem (n.)	존중, 높은 평가	regard	contempt
savoury	짭짤한(단맛이 아닌)	salty	sweet
accompaniment	곁들이는 음식	side dish	—
conversion	개종, 전향	change of heart	—
ingestion	섭취	consumption	—
refreshing	상쾌한	invigorating	—
appreciate	진가를 알다	value	disdain
prejudice	편견	bias	—

내용 일치 인생의 첫 35년 = 제한적 · 다소 부정적 · 1986년 영국에 오기 전 코코넛을 본 적 없음 · 까닭 = 한국이 너무 북쪽 + 당시 너무 가난 · 처음 접한 형태 = 비스킷에 섞인 말린 과육(이국적 간식) · 전환점 = 1990년대 후반 멕시코 칸쿤, 첫 열대 해변 휴가, 첫 피냐 콜라다 · 순서 = 타이 커리 → 락사(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나시 르막(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모케카 바이아나(브라질 바이아주)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북인도보다 꼭 더 좋다는 말은 아님) · 사반세기 뒤 = 코코넛 워터 · 팜하트(꼭 코코넛 야자는 아닐 수 있음) · 삼바르 · 토렌(즐기지만 사랑까지는 아님) · 마카롱 · 비스킷은 아직. **밑줄 의미** had a radical revision = 코코넛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바뀌었다 / my conversion to the cause of coconut was complete = 종교를 바꾸듯 완전히 코코넛 편이 되었다 / some prejudices die hard = 처음 비스킷으로 만난 코코넛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 있다 / 34쪽 ¶2 it(was mixed) = pineapple juice / 34쪽 ¶3 the former = 남인도 · 스리랑카 요리, the latter = 북인도 요리.

한 줄 요약 코코넛을 비스킷 속 말린 과육으로만 알던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칸쿤의 피냐 콜라다를 계기로 코코넛 밀크 요리에 '개종'했지만, 비스킷 속 코코넛에 대한 편견은 아직 남아 있다.

3-2 쓰임새 많은 코코넛, 열대의 풍요라는 상징 35쪽 ¶1~¶4 + 38쪽 각주 i · ii

원문 위치 원서 35쪽 ¶1~¶4 + 38쪽 각주 i ·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1 둘째 문장	The immature fruit is a ready source of clean water	내용 일치 — immature ↔ ripe
▲	35쪽 ¶1 둘째 문장	are said to have routinely carried immature coconuts	전언 + 완료부정사
▲	35쪽 ¶1 넷째 문장	It is known to have been the first vegetable oil used by fish-and-chip shops	be known to have been / 과거분사 후치
★	35쪽 ¶1 넷째 문장 + 38쪽 각주 i	set up by Jewish immigrant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Nut Lard	숫자 · 고유명사
★	35쪽 ¶1 여섯째 문장	before petroleum-based lubricants took over	내용 일치 — before ↔ after
★	35쪽 ¶1 일곱째 문장	Coir, the fibre from the husk of the coconut, is used in ropes	동격 · 내용 일치
★	35쪽 ¶1 여덟째 문장	coconut oil can be made into biodiesel, as it is in the Philippines	서답형 후보 — 나라
▲	35쪽 ¶2	Coconut being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it has come to symbolize	의미상 주어를 밝힌 분사구문
●	35쪽 ¶2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	빈칸 · 어휘(bounty ↔ scarcity)
◆	35쪽 ¶2	at least in the minds of many people who do not live there	한정 — 열대 밖 사람들의 생각
◆	35쪽 ¶3 첫 문장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of a chocolate bar	밑줄 의미: 이름에 '풍요'가 담김
◆	35쪽 ¶3 둘째 문장	rubbing shoulders with such chocolate bar luminaries	밑줄 의미: 유명 제품들과 나란히
▲	35쪽 ¶4	is so deeply entrenched that the so-called 'Robinson Crusoe economy' model … is	so ~ that / 긴 주어 +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4	there is actually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 in Robinson Crusoe	요약문 · True/False 1순위
★	38쪽 각주 ii	lime, lemon, grape and melon … barley and rice … hunts goats, and fishes	내용 일치 — 코코넛은 0

내용

코코넛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덜 익은 열매는 깨끗한 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이다. 열대 바다를 건너던 장거리 범선들은 덜 익은 코코넛을 비상용 식수로 늘 싣고 다녔다고 한다. 코코넛 오일은 요리에 많이 쓰인다.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들이 세운 영국의 피시 앤드 칩스 가게들이 처음 쓴 식물성 기름이 코코넛 오일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각주에 따르면 인기 있던 상표는 Nut Lard였다. 저자는 이것을 많은 '영국' 것이 실제로는 외국에서 왔다는 또 하나의 예로 든다. 코코넛 오일은 비누와 화장품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다. 석유계 윤활유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공장에서 윤활유로 쓰였고,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쓰는 글리세린을 공급하기도 했다. 코코넛 겉껍질의 섬유인 코이어는 밧줄 · 솔 · 자루 · 매트에 쓰이고 매트리스 속으로도 쓰인다. 코코넛은 연료가 되기도 한다. 겉껍질과 단단한 껍데기는 숯이 되고, 코코넛 오일은 바이오디젤로 만들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고 유용하다 보니, 코코넛은 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의 이름이 Bounty(풍요)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포장지에는 코코넛 나무, 맑고 파란 바다, 흰 모래, 쪼갠 코코넛이 그려져 있다. Bounty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바는 아닐지 몰라도, Mars, Inc.가 만드는 미니 초콜릿 바 모음 Celebrations에 Mars · Snickers · Twix · Galaxy · Milky Way 같은 쟁쟁한 초콜릿 바들과 나란히 들어갈 만큼은 인기가 있다. 코코넛과 열대의 연관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많은 경제학자가 학생들에게 기초 경제 개념을 가르치려고 쓰는 이른바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은 코코넛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일 상품 경제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에는 코코넛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각주에 따르면 크루소는 섬에서 자라는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을 먹고, 보리와 쌀을 기른다. 이 곡식은 그가 난파선에서 찾은 닭 모이 자루에 들어 있던 껍질에서 자랐는데, 그는 자루가 빈 줄 알고 그것을 버렸었다. 그는 염소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그의 식단에 코코넛은 전혀 없다.

어법

- **long-distance sail ships crossing tropical waters are said to have routinely carried immature coconuts as an emergency water supply**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언, 완료부정사로 말하는 지금보다 앞선 과거). crossing = 현재분사 후치(ships를 꾸밈). as = ~로서.
- **It is known to have been the first vegetable oil used by fish-and-chip shops in Britain, which were set up by Jewish immigrant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be known to have been =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used by = 과거분사 후치.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fish-and-chip shops 복수 → were set up, 수동).
- **Coir, the fibre from the husk of the coconut, is used in ropes, brushes, sacks, mats and also as stuffing for mattresses** : 콤마 사이 = Coir와 동격. 주어 Coir(단수) → is used. be used in(~에 쓰이다)과 (be used) as(~로 쓰이다)가 and로 이어짐.
- **its husks and shells are made into charcoal, while coconut oil can be made into biodiesel, as it is in the Philippines** : be made into = ~로 만들어지다(재료가 형태를 바꿈; be made of / from과 구별). while = 대조. as it is = as it is made into biodiesel(뒤를 생략하고 is만 남긴 대동사).
- **Coconut being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it has come to symbolize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s** :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 주어 Coconut을 밝혀 쓴 형태(= As coconut is such a versatile and useful thing). 주절의 it = coconut. such a + 형용사 + 명사. have come to V = ~하게 되었다.

-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of a chocolate bar, popular in Britain and Canada, with a coconut filling** : It is no coincidence that ~ = ~은 우연이 아니다(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popular in ~ = 형용사구가 a chocolate bar를 뒤에서 꾸밈(which is 생략으로 볼 수 있음).
- **The association of coconut with the tropics is so deeply entrenched that the so-called 'Robinson Crusoe economy' model that many economists use … is a single-commodity economy producing and consuming only coconut** : so + 부사 + 과거분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that절의 주어 model(단수) ← 목적격 관계절 that many economists use … → 동사 is. producing and consuming = 현재분사 후치.
- **these grew from the husks that had been in the bag of chicken feed that he had found on his wrecked ship and thrown away, thinking that they were empty** : had found와 (had) thrown away가 병렬(과거완료: 싹이 나기 전의 일). thinking = 이유의 분사구문(빈 줄 알고). they = the husks. 38쪽 각주 ii.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mature	덜 익은	unripe	ripe
routinely	으레, 늘	regularly	rarely
emergency	비상	crisis	—
ingredient	재료, 성분	component	—
lubricant	윤활유	grease	—
take over	대신 차지하다	replace	—
husk	겉껍질	outer shell	—
versatile	다용도의	multipurpose	limited
symbolize	상징하다	represent	—
bounty	풍요, 넉넉함	abundance	scarcity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chance	—
luminary	유명 인사, 거물	star	nobody
entrenched	굳게 자리 잡은	ingrained	shallow
commodity	상품	good	—

내용 일치 덜 익은 열매 = 깨끗한 물 · 장거리 범선이 비상용 식수로 실었다'고 함' · 코코넛 오일 =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가 처음 쓴 식물성 기름'으로 알려짐' · 가게를 세운 사람 =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 · 인기 상표 Nut Lard(38쪽 각주 i) · 비누 · 화장품 · 석유계 윤활유 '이전'의 공장 윤활유 · 다이너마이트용 글리세린 · 코이어 = 겉껍질 섬유(밧줄 · 솔 · 자루 · 매트 · 매트리스 속) · 숯 = 겉껍질과 껍데기 · 바이오디젤 = 오일(필리핀) · 풍요의 상징 = '적어도 열대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 Bounty = 영국 · 캐나다 · Celebrations(Mars, Inc.) · 로빈슨 크루소 경제 = 코코넛만 생산 · 소비 · 소설에는 코코넛 없음 · 크루소의 식단 = 라임 · 레몬 · 포도 · 멜론 · 보리 · 쌀 · 염소 · 물고기(38쪽 각주 ii). **밑줄 의미** It is no coincidence that Bounty is the name = 코코넛 초콜릿 바에 '풍요'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코코넛 = 열대의 풍요라는 연상 때문이다 / rubbing shoulders with such chocolate bar luminaries = 이름난 초콜릿 바들과 한 상자에 나란히 들어 있다 / not a single mention of coconut = 경제학 모델의 코코넛은 소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상에서 왔다 / 35쪽 ¶1 Its oil = 코코넛의, It(is known) · It(was used) = 코코넛 오일 / 35쪽 ¶2 there = 열대.

한 줄 요약 물 · 기름 · 섬유 · 연료로 두루 쓰이는 코코넛은 열대 밖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열대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연상은 Bounty 초콜릿 바와 코코넛이 나오지도 않는 로빈슨 크루소 경제 모델에까지 스며 있다.

3-3 코코넛 나무 아래 누운 '게으른 원주민'? 35쪽 ¶5 ~ 36쪽 ¶3

원문 위치 원서 35쪽 ¶5 ~ 36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5	it is often used to 'explain' the human poverty frequently found in the zone	전환점 — 따옴표의 'explain' =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님
★	35쪽 ¶6 첫 문장	poor countries are poor because their people do not work hard	통념(반박 대상)
▲	35쪽 ¶6 둘째 문장	given that most, if not all, poor countries are in the tropics	given that / if not all
▲	35쪽 ¶6 둘째 문장	they often attribute the lack of work ethic … to the easy living	attribute A to B
◆	35쪽 ¶6 둘째 문장	the easy living that they supposedly get thanks to the bounty of the tropics	지칭 · 전언(supposedly)
★	36쪽 첫 줄(35쪽 ¶6 셋째 문장)	In the tropics, it is said, food grows everywhere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36쪽 첫 줄(35쪽 ¶6 넷째 문장)	consequently become less industrious	어휘: industrious ↔ lazy
▲	36쪽 ¶1 첫 문장	mostly in private, given the offensive nature of the argument	given + 명사(전치사)
◆	36쪽 ¶1 둘째 문장	the 'natives' lie beneath a coconut tree and wait for coconuts to fall	밑줄 의미 · 순서 배열의 고리
▲	36쪽 ¶1 둘째 문장	rather than trying to actively grow or, better still, make things	rather than -ing
◆	36쪽 ¶2	Quite a plausible tale – except that it is entirely false.	밑줄 의미: 반전
◆	36쪽 ¶3 둘째 문장	If they did, there is a danger that the falling coconut will crush their skulls	지칭 · 삽입 고리: they = 분별 있는 주민
★	36쪽 ¶3 둘째 문장	an urban legend that coconuts kill more people than sharks do, which isn't true	내용 일치 — True/False 함정
◆	36쪽 ¶3 셋째 문장	the fictitious 'lazy native'	밑줄 의미: 지어낸 인물

내용

코코넛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대 지방의 자연적 풍요를 상징한다면, 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에도 자주 쓰인다. 부자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까닭이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흔히 가정한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열대에 있다는 점을 들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없는 것을 열대의 풍요 덕분에 그들이 누린다는 편한 삶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열대에서는 바나나 · 코코넛 · 망고처럼(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그렇다)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기온이 높아 튼튼한 집이나 많은 옷이 필요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열대 나라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결국 덜 부지런해진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주장 자체가 모욕적이다 보니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흔히 코코넛을 빌려 표현된다. 이 '열대의 근로 의식 결핍' 이론의 지지자들은 '원주민'이 작물을 적극적으로 기르거나, 더 나아가 물건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코코넛 나무 아래 누워 코코넛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열대 나라들이 가난하다고 감히 말한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만 빼면. 우선 분별 있는 열대 주민이라면 공짜 코코넛을 원하더라도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떨어지는 코코넛에 두개골이 으스러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꽤 있다 보니 코코넛이 상어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도시 전설까지 있다. 물론 이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지어낸 '게으른 원주민'이라 해도 코코넛 나무 아래 눕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가(원한다면 누워서 — 꼭 누워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따금 나무 밑에 코코넛이 떨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다.

어법

- **If the coconut symbolizes the natural bounty of the tropical zone in many people's minds, it is often used to 'explain' the human poverty frequently found in the zone** : If = 조건이라기보다 '~라면 (한편으로는)'이라는 대비. be used to V = ~하는 데 쓰이다(수동 + 목적의 to부정사;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와 구별). frequently found = 과거분사 후치.
- **A common assumption in rich countries is that poor countries are poor because their people do not work hard** : 주어 A common assumption(단수) → is. that절 = 보어 역할의 명사절. their = poor countries'.
- **And given that most, if not all, poor countries are in the tropics, they often attribute the lack of work ethic of the people in poor countries to the easy living that they supposedly get** : given that = ~을 고려하면(접속사 역할). if not all = 전부는 아니더라도(삽입). attribute A to B = A를 B 탓으로 돌리다. 앞 they = 부자 나라 사람들, 뒤 they = 가난한 나라 사람들. supposedly = 그렇다고들 하는(전언).
- **In the tropics, it is said, food grows everywhere (...), while the high temperature means that people don't need sturdy shelter or much clothing** : it is said = 삽입된 전언(~라고들 한다 — 사실 단정이 아님). while = 대조 · 덧붙임. mean that = ~라는 뜻이다(결과로 이어짐).
- **This idea is often expressed – mostly in private, given the offensive nature of the argument – using coconut** :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전치사). using = 수단의 분사구문(코코넛을 써서). 대시 사이 = 삽입.
- **the 'natives' lie beneath a coconut tree and wait for coconuts to fall, rather than trying to actively grow or, better still, make things** : wait for + O + to V = O가 ~하기를 기다리다. rather than -ing = ~하지 않고. try to V = ~하려고 애쓰다. better still = 더 나아가(삽입). grow와 make가 to에 병렬.
- **Quite a plausible tale – except that it is entirely false.** : 동사 없이 명사구로 된 문장(It is quite a plausible tale). quite a + 형용사 + 명사 어순. except that + 절 = ~라는 점만 빼면.
- **people do get killed by falling coconuts, so much so that there is an urban legend that coconuts kill more people than sharks do, which isn't true** : do get killed = 강조의 do + get 수동(정말로 죽는다). so much so that = 그 정도가 너무 커서 ~할 정도로. legend that = 동격 that. sharks do = 대동사(kill people). 계속적 which = 도시 전설의 내용.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ssumption	가정, 추정	presumption	—
work ethic	근로 의식	diligence	—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scribe A to B	—
supposedly	그렇다고들 하는, 이른바	allegedly	actually
sturdy	튼튼한	solid	flimsy
industrious	부지런한	diligent	lazy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insulting	inoffensive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venture (v.)	감히 말하다	dare to say	—
plausible	그럴듯한	believable	implausible
sensible	분별 있는	reasonable	foolish
crush	으스러뜨리다	smash	—
urban legend	도시 전설	myth	fact
fictitious	허구의	imaginary	real

내용 일치 코코넛 = 열대의 풍요 → 열대의 가난을 '설명'하는 데도 쓰임 · 부자 나라의 흔한 가정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음 · 가난한 나라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열대 · 편한 삶은 '그렇다고들 하는'(supposedly) 것 · 먹을 것이 어디서나 자라고 집과 옷이 덜 필요 = '라고들 함'(it is said) · 표현 방식 = 모욕적이라 주로 사적으로, 코코넛을 빌려 · 주창자들의 말 = '원주민'이 나무 아래 누워 열매를 기다림 · 저자 =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 · 실제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죽는 사람이 있음 ·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 = 도시 전설, 사실 아님 · '게으른 원주민'은 지어낸 인물. **지칭** 35쪽 ¶5 it(is often used) = the coconut / 35쪽 ¶6 their people = 가난한 나라의 / they often attribute = 부자 나라 사람들 / that they supposedly get = 가난한 나라 사람들 / 36쪽 ¶1 This idea = 열대의 편한 삶 때문에 덜 부지런해진다는 생각 / 36쪽 ¶2 it is entirely false = 그 이야기(tale) / 36쪽 ¶3 they(wanted · did) = 분별 있는 열대 주민 / which isn't true = 코코넛이 상어보다 많이 죽인다는 전설.

> **한 줄 요약** 부자 나라 사람들은 코코넛 나무 아래 누운 '게으른 원주민'이라는 그림으로 열대의 가난을 근로 의식 탓으로 돌리지만, 저자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할 뿐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한다.

3-4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한다 36쪽 ¶4 ~ 37쪽 ¶2 + 38쪽 각주 iii · iv

원문 위치 원서 36쪽 ¶4 ~ 37쪽 ¶2 + 38쪽 각주 iii · 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6쪽 ¶4 첫 문장	it is a complete myth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 lack in terms of work ethic	저자의 주장 · 요지
▲	36쪽 ¶4 첫 문장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many of which(many of them은 오답)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6쪽 ¶4 둘째 문장	they work much hard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요지 1순위
▲	36쪽 ¶5 첫 문장	a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working	단수 주어 → is
★	36쪽 ¶5 둘째 문장	83% in Tanzania, 77% in Vietnam and 67% in Jamaica	숫자 — 서답형 후보
◆	36쪽 ¶5 둘째 문장	63% in South Korea, the supposed nation of workaholics	밑줄 의미: '그렇다고들 하는'
★	38쪽 각주 iii	either gainfully employed or … actively looking for a job	정의 — 내용 일치
★	36쪽 ¶6 둘째 문장	on average 29% of children aged five to seventeen	숫자 — 서답형 후보
★	36쪽 ¶6 둘째 문장	this does not include children doing 'children's work'	불일치 1순위 — 포함 ↔ 제외
★	36쪽 ¶6 셋째 문장	nearly half the children were working (49%) … around 40%	숫자 바꿔치기
●	36쪽 ¶7 첫 문장	in their physical prime	어휘: prime ↔ decline
★	36쪽 ¶7 둘째 문장	as high as 90% … less than 10% in forty or so poor countries	숫자
●	37쪽 첫 줄(36쪽 ¶7 셋째 문장)	I believe these are very valuable things for other reasons	어휘 반전 1순위 · 저자의 믿음
▲	37쪽 ¶1 둘째 문장	work much later into their lives than do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than + do + 주어 도치
★	37쪽 ¶2 둘째 문장	around 60–80% longer … and 25–40% longer	숫자 — 짝 바꿔치기
◆	37쪽 ¶2 둘째 문장	despite their reputation for being 'worker ants'	지칭: their = the Japanese

내용

더 진지하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그 가운데 많은 나라가 열대에 있다)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완전한 신화다. 사실 그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우선 가난한 나라에서는 대개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부자 나라보다 훨씬 높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탄자니아 83%, 베트남 77%, 자메이카 67%였고, 독일은 60%, 미국은 61%, 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한국은 63%였다. 각주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돈을 버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더한 수를 생산가능인구 전체로 나눈 값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 가운데 아주 많은 비율이 학교에 가는 대신 일한다. 유니세프는 2010~18년 동안 최빈국(LDCs)의 5~17세 아동 가운데 평균 29%가 일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는 집안일, 동생 돌보기, 신문 배달 같은 '아이들의 일'을 하는 아이들은 들어 있지 않다. 각주에 따르면 최빈국은 대략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나라지만, 정확한 정의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동의 거의 절반(49%)이 일했고,

부르키나파소 · 베냉 · 차드 · 카메룬 ·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의 아동 노동률(일하는 아동의 비율)은 40% 안팎이었다. 게다가 부자 나라에서는 신체적으로 한창때인 18~24세의 대다수가 전문대학 · 대학이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다. 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핀란드 같은 일부 부자 나라에서 90%에 이를 수 있는 반면, 40개쯤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10%도 안 된다. 곧 부자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성인기 초반에 꽤 들어서고 나서야 일을 시작하며, 그 가운데 많은 이가 문학 · 철학 · 인류학 · 역사처럼 경제적 생산성을 곧바로 높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배운다. 저자는 이런 공부가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은퇴 후 연령(나라에 따라 60~67세)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이 부자 나라보다 낮다. 그러나 살아 있는 한, 가난한 나라의 노인들은 부자 나라의 노인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이가 은퇴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노인이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자영농이나 가게 주인으로, 또는 무급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하며 일한다. 더구나 일할 때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일한다.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처럼 더 가난하고 '더 더운' 나라 사람들은 독일인 · 덴마크인 · 프랑스인보다 60~80%쯤, 미국인 · 일본인보다 25~40%쯤 더 오래 일한다. 덧붙여 일본인은 '일개미'라는 평판과 달리 요즘은 미국인보다 덜 일한다.

어법

- **it is a complete myth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lack in terms of work ethic**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many of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poor countries; 사물이라 which). 변형 → many of them은 접속사 없이 두 절을 이어 비문.
- **usually a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working in poor countries than in rich ones** : 주어 a proportion(단수) → is. much = 비교급 강조. than in rich ones = in 반복으로 비교 대상을 맞춤. ones = countries.
- **UNICEF … estimates that, during the 2010–18 period, on average 29% of children aged five to seventeen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were working** : 부분 · 비율 표현(29% of) + 명사 → 동사는 of 뒤 명사(children, 복수)에 맞춰 were. aged five to seventeen = 과거분사 후치(~세의).
-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re in tertiary education of the relevant age cohort could be as high as 90% in some rich countries … whereas it is less than 10% in forty or so poor countries** : 주어 The percentage(단수) — 조동사 could라 수 일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뒤의 it is(단수)가 같은 주어를 받는다. those who = ~하는 사람들. of the relevant age cohort = percentage에 걸림(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as high as = ~만큼 높은(최대). whereas = 대조. or so = ~쯤.
- **in rich countries, most people are not working until they are well into their early adulthood, many of them learning things that may not directly raise their economic productivity** : not ~ until = ~이 되어서야 비로소 … 하다. well into = ~에 꽤 들어서. many of them learning = 의미상 주어(many of them)를 밝힌 독립분사구문. may not directly = 곧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추측).
- **But insofar as they are still alive, old people in poor countries tend to work much later into their lives than do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as many of them cannot afford to retire** : insofar as = ~하는 한. than + do + 주어 = 비교절 도치(do = work를 받는 대동사). as = 이유. afford to V = ~할 형편이 되다.
- **People in poorer, 'hotter' countries … work around 60–80% longer than do the Germans, the Danes or the French, and 25–40% longer than do the Americans or the Japanese** : 수치 + 비교급(60–80% longer) = ~만큼 더. than do + 주어 = 도치 비교. 두 비교가 and로 병렬.
- **the Japanese (who are, by the way, despite their reputation for being 'worker ants', these days working less than the Americans)** : who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Japanese). despite + 명사(reputation). reputation for being ~ = ~라는 평판. by the way = 덧붙여. these days + 현재진행 = 요즘의 경향.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yth	근거 없는 믿음	fallacy	fact
counterpart	(대응하는) 상대	equivalent	—
proportion	비율	share	—
participation	참가	involvement	—
workaholic	일중독자	—	idler
estimate (v.)	추정하다	calculate	—
chore	허드렛일	task	—
sibling	형제자매	brother or sister	—
prime (n.)	한창때	peak	decline
tertiary	(교육이) 고등의	higher	primary
cohort	(연령) 집단	group	—
afford to V	~할 형편이 되다	manage to	—
decrepit	노쇠한	frail	robust
reputation	평판	image	—

내용 일치 근로 의식 부족 = 완전한 신화(저자) · 경제활동참가율(2019, 세계은행) = 탄자니아 83 · 베트남 77 · 자메이카 67% vs 독일 60 · 미국 61 · 한국 63%(일중독자의 나라'라고들 하는') · 정의 = 취업자 + 적극적 구직자 ÷ 생산가능인구(38쪽 각주 iii) · 아동 노동(UNICEF, 2010~18) = 최빈국 5~17세 평균 29% · '아이들의 일'은 제외 · 최빈국 = 대략 소득 1,000달러 미만(38쪽 각주 iv) · 에티오피아 49% · 부르키나파소 등 약 40% · 부자 나라 18~24세 대다수 = 고등교육 · 최대 90%(미국 · 한국 · 핀란드) vs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10% 미만 · 인문학 = 다른 이유로 매우 가치 있다(저자의 믿음) · 은퇴 후 연령 = 60~67세 · 노동 시간 = 독일 · 덴마크 · 프랑스보다 60~80% · 미국 · 일본보다 25~40% 더 · 일본인은 요즘 미국인보다 덜 일함. **지칭** 36쪽 ¶4 many of which = poor countries / they work much harder = 가난한 나라 사람들 / 36쪽 ¶6 this(does not include) = 29%라는 추정치 / 36쪽 ¶7 it(is less than 10%) = 고등교육 비율 / many of them = 부자 나라의 젊은이들 / these(are very valuable) = 문학 · 철학 같은 공부 / 37쪽 ¶1 they · many of them · them = 가난한 나라의 노인 / 37쪽 ¶2 who · their reputation = the Japanese.

> **한 줄 요약** 경제활동참가율 · 아동 노동 · 늦은 사회 진출 · 노년의 노동 · 노동 시간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

3-5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 개인이 아니라 구조 37쪽 ¶3 ~ 38쪽 ¶2

원문 위치 원서 37쪽 ¶3 ~ 38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7쪽 ¶3 첫 문장	their poverty cannot be a matter of their diligence	cannot be = ~일 리 없다
★	37쪽 ¶3 둘째 문장	It is about productivity.	빈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7쪽 ¶3 셋째 문장	they produce much less because they are not as productive	not as + 원급
★	37쪽 ¶4 첫 문장	not even mainly due to the qualities of individual workers	내용 일치 — 개인 자질은 주된 원인이 아님
★	37쪽 ¶4 셋째 문장	as individual workers, as productive as their rich-country counterparts	내용 일치 — 대부분의 일자리
▲	37쪽 ¶4 넷째 문장	upon arrival, despite the fact that they do not acquire extra skills	upon + 명사 / despite the fact that
★	37쪽 ¶4 다섯째 문장	better technologies … higher-quality infrastructure … better-functioning social arrangements	빈칸 · 요약 후보
▲	37쪽 ¶4 여섯째 문장	It is as if a jockey who used to struggle with an undernourished donkey is suddenly riding	as if + 직설법 / used to
◆	37쪽 ¶4 일곱째 문장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밑줄 의미 1순위
▲	37쪽 ¶5	why poor countries have less productive … arrangements … is a complex story	의문사절 주어 → is
●	37쪽 ¶5 ~ 38쪽 첫 줄	low-value primary commodities · intractable · deficient · unfair	어휘 반전 후보
▲	38쪽 ¶1	what is clear is that	what절 주어 + is that
★	38쪽 ¶1	force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 least of all their unwillingness to work hard	저자의 주장 · 주제문
▲	38쪽 ¶2 첫 문장	has helped the global elites … blame the poor individuals	단수 주어 → has / help + O + 원형
★	38쪽 ¶2 둘째 문장	Perhaps getting the story about the coconut right will help	추측(Perhaps) · 동명사 주어

내용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들의 가난은 근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생산성의 문제다. 이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삶의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일하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 훨씬 적게 생산한다. 그리고 이 낮은 생산성은 교육 수준이나 건강 같은 개별 노동자의 자질 때문인 것도 주로는 아니다. 그런 것은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는 개인으로서는 부자 나라의 노동자만큼 생산적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간 이민자들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더 익히거나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데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이 크게 오른다. 갑자기 더 나은 기술을 갖고 더 잘 경영되는 생산 단위(공장 · 사무실 · 가게 · 농장)에서 일하며, 더 질 좋은 인프라(전기 · 교통 · 인터넷)와 더 잘 작동하는 사회 제도(경제 정책 · 법 체계)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이다. 영양이 부족한 당나귀로 고생하던 기수가 갑자기 순종 경주마를 타게 된 것과 같다. 물론 기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경주에서 이기느냐는

그가 탄 말 — 또는 당나귀 — 이 대체로 결정한다. 가난한 나라에 왜 낮은 생산성을 낳는, 덜 생산적인 기술과 사회 제도가 있는지는 복잡한 이야기여서, 이 짧은 장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수많은 요인을 논의해야 한다. 나라들을 낮은 가치의 1차 산품에 특화하도록 몰아넣은 식민 지배의 역사,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분열, 엘리트의 결함(비생산적인 지주, 역동성 없는 자본가 계급, 비전 없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 부자 나라에 유리한 불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대체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 정치적 · 기술적 힘 때문이지 개인의 결점 때문이 아니며,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코코넛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거짓 이미지가 보여 주는, 가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양쪽의 세계 엘리트들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개인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저자는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으면 어쩌면 나머지 우리가 그 엘리트들에게 역사적 불의와 배상, 국제적 권력의 비대칭, 나라 안의 경제 · 정치 개혁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어법

- **If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actually working much hard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their poverty cannot be a matter of their diligence** : 직설법 조건(앞의 근거가 사실이라면 → 논리적 귀결). cannot be = ~일 리 없다(강한 부정 추측). a matter of = ~의 문제.
- **they produce much less because they are not as productive** : not as + 원급 = ~만큼 …하지 않은(as their counterparts in rich countries 생략). much less = 비교급 강조(훨씬 적게).
- **This low productivity is, in turn, not even mainly due to the qualities of individual workers, such as their education level or health** : due to + 명사 = ~ 때문인. not even mainly = 주된 원인조차 아니다(부분 부정 — '전혀 상관없다'가 아님). in turn = 이번에는, 다시.
- **immigrants from poor economies into rich ones experience a vast increase in their productivity upon arrival, despite the fact that they do not acquire extra skills or experience dramatic improvements in health** : upon + 명사 = ~하자마자. despite는 전치사라 절을 받으려면 the fact that + 절. do not A or B = A도 B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experience = 동사(acquire와 병렬).
- **It is as if a jockey who used to struggle with an undernourished donkey is suddenly riding a thoroughbred racehorse** : as if 뒤에는 가정법(were riding)도, 직설법도 올 수 있다. 원서는 직설법 is riding. who used to V = 주격 관계대명사 + 과거의 상태 · 습관(예전엔 ~하곤 했다).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 or the donkey – that he is riding** : 의문사 who가 이끄는 명사절(간접의문문)이 주어 → 단수 is. be determined by = ~에 의해 결정되다. that he is riding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horse). he = the jockey.
- **why poor countries have less productive technological and social arrangements that result in low productivity is a complex story that requires discussion of a whole host of factors that I cannot do justice to in this short chapter** : why절(명사절) 주어 → 단수 is. that result in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rrangements → 복수). do justice to = ~을 제대로 다루다(that I cannot do justice to = 전치사를 뒤에 남긴 목적격 관계절). a whole host of = 수많은.
- **what is clear is that poor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poor largely because of … force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rather than because of their individual shortcomings, least of all their unwillingness to work hard** : what절 주어 + is + that절 보어 = 분명한 것은 ~라는 것이다. beyond one's control = 통제할 수 없는. rather than = ~이 아니라. least of all = (그중에서도) ~은 더더욱 아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ligence	근면	industry	laziness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inefficienc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igh-end	고급의	upscale	low-end
acquire	습득하다	gain	lose
steep	가파른, 급격한	sharp	gradual
undernourished	영양이 부족한	underfed	well-fed
thoroughbred	순종의	purebred	mixed-breed
do justice to	제대로 다루다	treat fully	—
domination	지배	rule	—
intractable	다루기 힘든	stubborn	manageable
deficient	결함이 있는	inadequate	adequate
corrupt	부패한	dishonest	honest
shortcoming	결점	flaw	strength
restitution	배상	compensation	—

내용 일치 가난 =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 · 더 오래, 삶의 더 많은 기간 일하지만 덜 생산 · 낮은 생산성의 주된 원인 ≠ 개인의 자질(교육 수준 · 건강은 일부 고급 일자리에서만 중요) ·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개인으로서는 부자 나라 노동자만큼 생산적 · 이민자 = 기술 · 건강이 달라지지 않아도 도착하자마자 생산성 급등 · 까닭 = 더 나은 기술 · 더 잘 경영되는 생산 단위 · 인프라 · 사회 제도 · 기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승부는 '대체로' 말이 정함 · 구조적 원인 4가지(식민 지배 · 정치 분열 · 엘리트의 결함 · 불공정한 국제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일 뿐' · 결론 = 통제할 수 없는 역사 · 정치 · 기술의 힘 · 엘리트(부자 나라 + 가난한 나라) = 가난한 개인 탓 · 바로잡으면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Perhaps). **밑줄 의미** It is about productivity = 가난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다 /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 노동자를 둘러싼 기술 · 경영 · 인프라 · 제도가 개인의 능력보다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한다 / the rest of us = 엘리트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 37쪽 ¶4 These things = 교육 수준이나 건강 / he(is riding) = the jockey / 38쪽 ¶2 those elites = 세계 엘리트.

> **한 줄 요약** 가난한 나라의 가난은 근면이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이고, 그 낮은 생산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 · 제도 · 역사의 힘에서 오므로, 코코넛 이야기를 바로잡아 가난한 개인을 탓해 온 엘리트에게 물어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3 COCONUT]

범위	Coconut (원서 PDF 34~38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e point about poverty in poor nations is clear. People there stay poor mostly owing to historic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pressures they cannot control, not to their own flaws, and least of all to laziness. The coconut myth, a basic misreading of the roots of poverty, has let global elites from rich and poor nations alike put the blame on the poor. Getting the coconut story right might help everyone else press those elites on hard issues, from historical injustice and compensation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and the need for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at home.

① The poor must work harder to escape poverty.
② Global elites deserve credit for fighting poverty.
③ Stop blaming the poor for poverty beyond their control.
④ Poor nations should rely on tropical abundance.
⑤ Personal flaws mainly cause poverty in poor nation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conut has so many uses that it has become, at least for many outsiders, a symbol of the natural abundance found in hot countries. That is why a chocolate bar with a coconut centre, a favourite in Britain and Canada, is called Bounty, and hardly by chance. On the wrapper are a coconut palm, an opened coconut, white sand and a clear blue sea. Bounty may not rank among the world's top chocolate brands, but it is popular enough to have a place in Celebrations, the Mars, Inc. box of miniature bars, next to stars like Snickers, Twix and Galaxy.

① Coconut: A Symbol of Tropical Plenty
② Why Bounty Is the World's Best-Known Chocolate
③ The Hidden Costs of Growing Coconut
④ How Mars, Inc. Invented the Coconut Bar
⑤ Tropical People's Love for Chocolat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belief that people in poor nations, which are often tropical, lack a work ethic has no basis in fact. In truth, they work far harder than people in wealthy nations. For one thing, a much bigger share of working-age people usually has a job in poor nations. In 2019, World Bank figures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put the rate at 83% for Tanzania, 77% for Vietnam and 67% for Jamaica, but at 63% for South Korea, supposedly a nation of workaholics, 61% for the US and just 60% for Germany.

① South Korea is truly a nation of workaholics.
② Rich nations have more people seeking work.
③ Tropical heat weakens the will to work.
④ The poor work harder than people in rich nations.
⑤ Unemployment mainly causes global poverty.

4. 밑줄 친 some prejudices die ha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ome twenty-five years after his first piña colada, the author has grown to like coconut in other forms too. He loves coconut water for its cool, sweet yet salty taste. At salad bars in South America or South-east Asia, he loads up on palm hearts, though these may come from other kinds of palm rather than the coconut palm. He has even learned to enjoy, if not exactly adore, the grated coconut in South Indian dishes like thoren or sambar. Yet he is still not won over by coconut in biscuits such as macaroons; some prejudices die hard.

① He has dropped all his early views on coconut.
② His old distaste for coconut in biscuits remains.
③ Palm hearts rarely come from coconut palms.
④ He now prefers biscuits to South Indian food.
⑤ Prejudices against coconut are spreading.

5. 밑줄 친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poor countries, low productivity does not mostly come down to individual workers' traits, such as how healthy or educated they are. Such traits count in certain top-level jobs, yet in most kinds of work a poor-country worker is, individually, just as productive as a rich-country one. Consider migrants who move from poor to rich economies. Without picking up new skills or becoming much healthier, they see their productivity leap as soon as they arrive. The difference is that they now use superior technology in better-managed workplaces and enjoy stronger infrastructure and sounder social institutions. Imagine a jockey who has long battled with a half-starved donkey and is suddenly given a thoroughbred to ride. His skill matters, yet who wins the ra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horse.

① A skilled rider can win on any animal.
② Immigrants gain new skills when they move.
③ Good health is the key to productivity in all jobs.
④ Rich countries train their workers more carefully.
⑤ The conditions around workers matter more than their own abilit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 smaller share of people in poor countries reach post-retirement age, which is somewhere between sixty and sixty-seven depending on where you live. Yet older people there who are still alive generally carry on working much longer than ① their peers in wealthy countries, because many of ② them have no money to retire on. A great many of ③ them keep going until ④ they are physically frail, running their own farms or shops or doing unpaid household and care work. What is more, when poor-country people work, they work far longer. In Bangladesh, Indonesia, Cambodia and South Africa, people work some 60–80% more hours than the French, Danes or Germans, and 25–40% more than the Japanese or Americans. The Japanese, despite ⑤ their 'worker ant' image, now actually work less than American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Coconut has uses beyond the kitchen. An unripe coconut holds clean water, and sailing ships on long tropical voyages reportedly took young coconuts along as an emergency supply. Coconut oil was, as far as we know, the earliest vegetable oil that British fish-and-chip shops cooked with; those shops were founded by Jewish immigrants around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Nut Lard was a well-known brand. The oil also goes into soap and cosmetics. Factories once used it to lubricate machines until petroleum-based products took its place, and it provided glycerine for dynamite. Coir, which is husk fibre, is made into mats, sacks, brushes and ropes and used to stuff mattresses. Husks and shells become charcoal, and in the Philippines the oil is turned into biodiesel.

① 범선들은 다 익은 코코넛을 비상 식수로 실었다고 한다.
②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는 19세기 중반 유대인 이민자가 세웠다.
③ 코코넛 오일은 석유계 윤활유가 나온 뒤에 공장에서 쓰였다.
④ 코이어는 코코넛 껍데기를 태워 만든 연료다.
⑤ 필리핀에서는 코코넛 껍데기로 바이오디젤을 만든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 are at work when they should be at school. According to UNICEF estimates for the 2010–18 period, 29% of five-to-seventeen-year-olds in the group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on average, had jobs. Roughly speaking, LDCs are countries whose income is under $1,000, though the official definition is much more complicated. The figure excludes so-called 'children's work', for example helping with housework, minding younger siblings or doing a paper round. In Ethiopia almost half of all children (49%) worked, and in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had and Sierra Leone the child labour rate, that is, the share of children at work, was about 40%.

① 유니세프의 추정은 201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빈국 아동 노동 비율 29%는 5~17세 기준이다.
③ 29%에는 집안일이나 동생 돌보기 같은 '아이들의 일'도 포함된다.
④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동의 거의 절반이 일하고 있었다.
⑤ 부르키나파소와 차드의 아동 노동 비율은 약 40%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For about the first thirty-five years of his life, the author thought little of coconut. He had not seen a single coconut before he moved to Britain in 1986, ① since South Korea lay too far north to grow the fruit and was then too poor to buy foreign 'luxuries' like imported fruit. The only coconut he ② had come across was dried, grated flesh ③ mixing into biscuits sold as exotic snacks. His opinion was turned upside down in the late 1990s, when he had his first piña colada while on holiday at a beach in Cancún. He had always liked pineapple juice, but combined with rum and coconut milk, it ④ tasted magical. Half of the trip went on piña coladas; the rest he spent ⑤ chasing his toddler daughter around.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at holds back workers in poor nations is less their own ability than the weak technologies and social arrangements around them. Why poor nations end up with such unproductive arrangements (A) [is / are] a complicated question, and the author admits that one short chapter cannot do it justice. Still, he lists the key factors. One is colonial rule, which forced many countries into (B) [specialize / specializing] in primary goods of little value. Others include bitter political divisions that resist solution and failing elites: landlords who produce nothing, capitalists who lack dynamism, and corrupt leaders with no vision. Finally, there is a global economic order (C) [what / that] is tilted toward rich nations.

	(A)	(B)	(C)
①	is	specialize	what
②	are	specializing	that
③	are	specialize	that
④	is	specializing	that
⑤	is	specialize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wealthy countries, most people between 18 and 24, an age when the body is at its ① prime, are enrolled in junior colleges, universities or higher. In a few rich countries, including Finland, South Korea and the US, up to 90% of this age group may be in tertiary education, whereas the share is ② below 10% in about forty poor countries. Consequently, most young people in rich countries do not ③ start work until well into adulthood. Many study subjects such as history, anthropology, philosophy and literature, which may not ④ directly make them more productive economically. Yet the author believes such studies are ⑤ worthless for other reasons, so he does not dismiss those years as wast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ook at the evidence as a whole. Compared with rich countries, poor countries have more of their adults in the workforce, more children at work instead of in school, more old people working until their bodies fail, and longer hours for those who work. If poor-country people really work so much harder than people in rich ones, their poverty cannot be explained by any shortage of diligence. Instead, it comes down to _____. These people spend far more hours, over far more of their lives, at work than people in rich countries do, yet they turn out much less, because each hour of their labour yields less.

① productivity
② diligence
③ working hours
④ climate
⑤ willpower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Were they to do so, they would risk having a falling coconut crack their skulls.

According to a popular story, tropical people are poor because they lie under coconut palms, waiting for the nuts to drop. It sounds believable enough, except that it is completely false. (①) For one thing, few sensible people in the tropics would stretch out under a coconut palm, even for a free nut. (②) Falling coconuts really do kill people, so often in fact that an urban myth, an untrue one, claims they cause more deaths than sharks. (③) So even the made-up 'lazy native' would not lie under the palm. (④) He would rather wait elsewhere, lying down if he wished, and go over now and then to see whether a coconut had dropped.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s the author came across more savoury dishes using coconut milk, his regard for coconut rose. ① First he met the red and green curries of Thailand, then laksa, a hot Malaysian-Singaporean noodle soup made with coconut milk. ② Then came nasi lemak, a rice dish of Malaysia and Indonesia cooked with pandan leaves and coconut milk, eaten with chilli sambal plus extras like cucumber, half an egg, peanuts and crispy anchovies. ③ On a visit to Brazil he grew to love moqueca Baiana, the Bahian take on the fish stew moqueca, flavoured with coconut milk and chilli. ④ Coir, the fibre taken from coconut husks, is used to make mats, sacks, brushes and ropes. ⑤ Finally, dishes from Sri Lanka and South India, rich with coconut milk yet lighter than northern Indian food, completed his conversion, though he does not claim to like them bette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many people, the coconut represents the natural wealth of the tropics, and it is frequently called on to 'explain' why so many people there are poor.

(A) That easy life, the story goes, comes from food growing everywhere, from bananas to mangoes, and from a heat that makes sturdy housing and much clothing needless. So people survive without working hard and grow less industrious.

(B) A widespread belief in wealthy countries is that poverty in poor countries comes from people's failure to work hard. As most poor countries are tropical, this supposed laziness is often blamed on the easy life the tropics are thought to provide.

(C) Because the claim is offensive, people usually voice this view of tropical laziness privately, often with coconut: the 'natives', they claim, lie beneath a coconut palm waiting for fruit to drop rather than farming or, better yet, making thing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conut is so firmly tied to the tropics that it even shows up in economics teaching. Many economists teach basic ideas with a model called the 'Robinson Crusoe economy', which produces and consumes a single good, coconut. Yet the novel Robinson Crusoe never once mentions coconut. The fruits Crusoe eats on his island are melons, grapes, lemons and limes. He also grows rice and barley; these sprang up from husks he had tossed out of a chicken-feed bag he discovered on his wrecked ship, assuming the bag was empty. He fishes and hunts goats as well, yet coconut is entirely absent from his meals.

→ Coconut is so closely (A) _____ with the tropics that economists built a teaching model around it, even though the novel the model is named after (B) _____ coconut.

① associated ..... leaves out
② contrasted ..... leaves out
③ associated ..... celebrates
④ compared ..... depends on
⑤ confused ..... feature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Before coming to Britain in 1986, the author had never seen a coconut, and his first piña colada was in Cancún, Mexico, during the late 1990s. Coconut is useful in many ways; in the Philippines, for instance, its oil becomes biodiesel. Economists teach with a 'Robinson Crusoe economy' built on coconut, yet the novel itself never mentions the fruit. Coconut is also used to blame tropical poverty on laziness, but the numbers disagree. Tanzania'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2019 was 83%, against 60% for Germany. During 2010–18, 29% of five-to-seventeen-year-olds in the world's least developed countries were working, and people in hot, poor nations like Cambodia work 60–80% longer than Germans.

<QUIZ>

(1) In what year did the author come to Britain?
Answer for (1): _____

(2) Where did the author have his first piña colada?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country is coconut oil made into biodiesel?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coconut is mentioned in the novel Robinson Crusoe?
Answer for (4): _____

(5) What was Tanzania'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2019?
Answer for (5): _____

(6)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hat share of children between five and seventeen were working?
Answer for (6): _____

(7) How much longer than the Germans do people in Cambodia work?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Bahia
B. 25–40%
C. 29%
D. late 1990s
E. Puerto Rico
F. True
G. 77%
H. Sri Lanka
I. 83%
J. 49%
K. Malaysia
L. 2019
M. 60%
N. 40%
O. the Philippines
P. False
Q. Ethiopia
R. Cancún
S. 60–80%
T. 1986
U. 63%
V. 90%
W. Indonesia
X. 2010–18
Y. Tanzania
Z. Brazil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1986년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코코넛을 본 적조차 없었다. (until + 과거 / 과거완료(경험))

02 처음에는 타이 커리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락사가 나왔다. (부사 문두 도치 First came)

03 장거리 범선들은 덜 익은 코코넛을 비상용 식수로 싣고 다녔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4 코코넛 오일은 영국의 피시 앤드 칩스 가게들이 쓴 최초의 식물성 기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have been + 과거분사 후치)

05 코코넛과 열대의 연관은 너무 깊이 자리 잡아서 경제학자들은 코코넛만 생산하는 모델을 쓴다. (so + 부사 + p.p. + that)

06 그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근로 의식 부족을 열대의 풍요 탓으로 돌린다. (attribute A to B)

07 사람들은 정말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는다. (강조의 do + get 수동)

08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완전한 신화다.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09 최빈국 아동의 29%가 일하고 있었다. (비율 +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10 가난한 나라의 노인들은 부자 나라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한다. (than + do + 주어 도치)

11 누가 경주에서 이기느냐는 대체로 그가 타는 말이 결정한다.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수동)

12 분명한 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다. (what절 주어 + is that)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영국에 온 해 / 그전까지 접한 코코넛	
첫 피냐 콜라다를 마신 곳 / 때	
피냐 콜라다의 재료(장 첫머리)	
나시 르막을 짓는 재료 / 삼발	
모케카 바이아나의 고장	
영국 피시 앤드 칩스 가게를 세운 사람 / 때	
인기 있던 코코넛 오일 상표(38쪽 각주 i)	
코코넛 오일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나라	
코코넛 겉껍질 섬유 / 쓰임	
코코넛 필링 초콜릿 바 / 들어 있는 모음	
경제학자들이 쓰는 단일 상품 경제 모델	
크루소가 섬에서 먹은 과일(38쪽 각주 ii)	
코코넛에 관한 도시 전설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탄자니아 · 베트남 · 자메이카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독일 · 미국 · 한국	

항목	답
2010~18년 최빈국 5~17세 아동 노동 / 에티오피아	
최빈국의 대략적 기준(38쪽 각주 iv)	
고등교육 비율: 일부 부자 나라 / 40개쯤의 가난한 나라	
은퇴 후 연령	
독일 · 덴마크 · 프랑스 / 미국 · 일본보다 더 일하는 정도	
기수 비유: 고생하던 동물 / 갈아탄 동물	

4-3. 통합 사고 문제 – 1장과 3장을 잇는 자리

문제

1장에서 저자는 무지와 때로는 악의 때문에 우리가 낯선 문화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쓰고,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놓친다고 했으며(24쪽 ¶1), 지난날 서양 방문객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흔히 게으르다고 묘사했지만(24쪽 ¶4) 일본과 한국의 시간을 지키는 산업 노동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썼다(25쪽 ¶3). 3장에서 저자는 부자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흔히 가정하고 그 탓을 열대의 풍요가 준다는 편한 삶으로 돌린다고 하고(35쪽 ¶6), 그들의 가난은 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라고 썼다(37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이 진짜 원인을 가린다는 근거를 1장과 3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장 또는 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근로 의식 부족이라는 생각: More seriously, it is a complete _____ that people in poor countries, many of which are in the tropics, lack in terms of work ethic.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